

고흥, 민선 9기 행정혁신 핵심과제 ‘친절 솔루션 랩’ 운영

군민과 함께 민원서비스 개선 나선다



고흥군 관계자와 군민들이 종합민원실에서 친절 솔루션 랩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9일 종합민원실에서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민원서비스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2026년 친절 솔루션 랩’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행정혁신 5대 분야 10개 과제 중 ‘청렴·친절분야’의 핵심 실행 과제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이끌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친절 솔루션 랩은 공무원 5명과 민원인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연 2회 정기 간담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민원 현장에서 경험한 불편·불친절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활동은 ▲민원응대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전화친절 및 방문민원 서비스 개선 ▲민원인 관점의 불편사례 발굴 ▲친절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이다. /이유빈 기자

보성, 유아 식단 공모전서
2건 수상

보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 리지원센터가 ‘2026 유아 지극식단 레시피 공모전’에서 출품작 2건 모두 우수상인 ‘바른먹거리상’을 수상했다.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메뉴는 ‘알록달록 아채만두 라파뚜이’와 ‘감자랑 콩단백 피자’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식품조리과학회와 풀무원푸드머스가 공동 주최했으며, 식물성 식재료를 활용한 유아용 급식 메뉴를 발굴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건강한 식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총 223건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성군 센터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메뉴 개발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급식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해남, 로봇 체험·가족 진로
캠프 참여자 모집

해남군교육재단은 지역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진로 탐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창의융합레벨업 프로그램과 청소년 가족 진로 소통 캠프를 운영한다.

창의융합레벨업 프로그램 ‘e-스마트한 코딩 세상’은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해남군 평생학습관에서 총 4회 운영된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20명 이내를 대상으로 아이오티(IoT)·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기술을 활용한 로봇 제작 및 제어 체험을 진행한다.

참여 학생들은 스마트 스파이더 로봇, 이족보행 로봇, 스마트 RC카, 미니언 인터랙티브 로봇 등을 직접 제작하고 조작하며, 로봇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가족 진로 캠프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을 나누고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2026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3차 강연 개최

진도군(군수 이재각)은 오는 22일(목) 오후 2시,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올해 세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는 배우이자 소설 「우리동네 도서관」을 통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인표를 초청했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입니다’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차인표는 책 이야기 마당(북 콘서트) 형식으로 군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일상의 순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2026년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장흥군은 지난 19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실과소와 읍면 예산담당자 및 신규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규 발령 및 전보된 회계담당자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공공회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지방회계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회계 및 계약 분야 실무교육과 주요 사례,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52개 기관·사회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염원

사업 유치 바라는 군민 염원 담아 관내 곳곳에 현수막 게시



완도군 기관·사회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염원 현수막을 게시했다.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의 52개 기관·사회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유치를 바라는 마음을 한데 모아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 완도의 미래를 밝히자’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완도군변영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는 사업 유치를 바라는 군민의 염원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추진했다고 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지역 사랑 상품권)을 1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 지역 특성 반영 경

제 선순환 모델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며 공모 준비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완도사랑상품권 이용과 지역 내 소비, 소상공인과 생산자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군은 오는 22일 10시 공모 대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군민들과 공유하고자 생활문화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연다. 군 관계자는 “52개 기관·사회단체에서 뜻을 모아주시는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유치를 바라는 군민의 염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